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3월 9일(일) 제1531호



사진은 지난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양을 바라보라!

3월 10일~4월 18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 오전 5시 30분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3월 10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어린양을 바라보라'를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TV 채널에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와 박종길 목사, 강부호 목사, 이기원 목사, 이기훈 목사, 캠퍼스 담당목사, 온

누리교회 30~40대 부목사들이 설교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홍보하는 웹페이지(사진 속 QR코드 참고)도 제작했다. 모든 성도가 즐겁고, 은혜롭게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도록 '출석', '말씀', '묵상' 기능을 제공한다. 웹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다음, '예배당 예배' 또는 '영상 예배' 버튼을 클릭하면 출석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말씀' 메뉴에서는 당일 설교 정보와 칼럼을 읽을 수 있다. '묵상하기' 메뉴에서는 그날 묵상한 내용을 직접 기

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예배에 참여해서 찍은 사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진(화면 캡처 가능)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40일어린양을바라보라) 하고, 사진과 태그가 담긴 게시글을 캡처해서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Direct Message)을 보내면 된다. 성도들이 보낸 사진은 온누리교회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홍하영 기자

3월 비전헌금,
가나안농군학교 후원

3월 8일과 9일 봉헌하는 3월 비전헌금은 '가나안농군학교'의 '청년마을공동체' 프로젝트를 위한 숙소 리모델링을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가나안농군학교는 1931년 설립된 기독교 사회교육기관이다. 개신교 농촌운동가 김용기 장로(1909.9.5~1988.8.1)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이라는 신념으로 설립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건립 이념인 '근로, 봉사, 희생'은 새마을운동의 '자조, 근면, 협동' 정신에 영향을 줬다. 초창기에는 농업인을, 지금은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성, 생활 교육을 하고 있다. 지구촌 빈곤 극복을 위해 개도국 지도자들도 초청해 교육하고 있다.

제직회

3월 9일(일) 2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모든 제직
안간: 2024년 결산보고, 평남노회 청원

공동의회

3월 9일(일) 3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간: 2024년 결산보고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 돌봄'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창조세계 돌보는 실천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 돌봄(부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3월 10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이어진다. 올해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 돌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선물인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을 묵상하고, 이를 돌보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주 월요일에는 '인간'을 주제로 가정과 일터, 학교 등지에서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는 실천을 한다(주차별 실천 과제는 QR참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주 정해진 주제를 따라 창조세계를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1주차 '빛', 2주차 '공기', 3주차 '물', 4주차 '땅', 5주차 '계절', 6주차 '생명'에 관한 실천을 한다(자세한 내용은 QR참고).

사순절 기간 성도들이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e-Book을 제공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순절 묵상 내용과 실천사항을 사진과 소감문 등으로 기록해 4월 20일(일)까지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에 이메일(onnuri.lent@gmail.com)이나 문자메시지(010-6442-0191)를 보내면 된다.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와 <온누리신문>에 소개할 예정이다.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 개강

3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믿음홀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이 개강한다. 3월 14일부터 1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신동아쇼핑 2층)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공동체성경읽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유튜브를 활용한 '365일 성경읽기',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 참석, 공동체성경읽기모임 참석이다.

강신의 장로(공동체성경읽기사업팀)는 "많은 성도가 설교 듣는 것은 익숙한데 성경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은 어색해한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말씀과 신앙서적을 듣고 읽고 나누면 깊은 신앙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문의: 010-5603-5500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반복하며 강조했던 이유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린양과 용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과 용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조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조의 뿌리에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과 용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어린양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용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시대에도 용을 따르는 이들이 어린양과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을 공격 했듯이, 이 시대에도 동일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세 가지 방식으로 어린양을 공격합니다. 첫째, 쾌락, 둘째, 거짓된 가르침, 셋째, 박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에도 어린양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린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양’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찢었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7절).

‘보십시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다 정확한 번역은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입니다.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가셨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

니다. 구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오래전에 죽은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찢어 죽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찢어 죽인 자입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통곡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끝까지 무관심하고, 바라보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깨닫고 통곡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씀과 환상 가운데 발견한 예수님은 첫째, 영광스럽게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옷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머리와 눈을 봅시다. 머리와 눈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고 했고, 눈은 타오르는 불같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눈이 타오르는 불과 같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순수하지 못한 것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발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분의 발은 영광에서 제련된 청동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청동은 철과 구리를 합한 것입니다. 청동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입니다.

이제 그분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칼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무력과 재물에서 나오지만,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의 힘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

요한이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켜’고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

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알파벳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사의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신 분의 의미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의 통치자, 주권자가 바로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사 44:6).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며,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첫 열매로써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이 땅을 종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통치에 대항하는 세력은 모두 멸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현재 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는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영원과 시간의 다른 점입니다. 영원은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릅니다. 내일은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은 과거가 되고, 과거가 현재, 현재가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영원은 언제나 현재만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고, 우리의 미래도 현재고, 우리의 현재는 당연히 현재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이 세상의 시간과 역사 속에 오셨고, 이제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 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18절).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죽음의 음부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죽음의 벽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지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배 하지 못한 유일한 한 가지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열쇠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 있다”(눅 20:38).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의 의미와 우리가 보는 죽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이 더는 찾을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서면 살아있는 자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인생 속에서 어린양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보기 전에 홀로 유배되어 공동체와 단절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곱 교회가 점점 침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역자가 되었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교회를 일깨웠습니다.

이 시대도 영광스럽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양을 따를 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만이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강찬석 장로의 문화사역의 꿈 그리고 비전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준비된 신부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문화사역'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강찬석 장로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지난해 12월,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를 관람했다. 시대를 뛰어넘어 바울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남달랐다. 그 순간 문득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과연 내가 느끼는 감동을 비기독교인도 느낄 수 있을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관객을 만났다. 그리고 물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사역의 힘이다. 강찬석 장로는 문화사역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문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이다.

강찬석 장로는 1987년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당시에도 온누리교회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았다. 강찬석 장로는 그들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서 자신이 감당할 사역을 찾다가 교도소 사역을 시작했다. 10여 년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선교로 지경을 넓혔다. 계기가 있었다. 아들의 세례식이었다.

"군대에서 진행된 아들의 세례식에 참석했는데 병사들이 평평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군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 군선교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더니 "장로님께서 맡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사역을 시작했다. 말 그대로 맨몸으로 시작했다. 사역의 구조를 만들고, 동역자들을 찾는 일부터 했다.

"그 일을 했수로 1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맨몸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군선교사역팀'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후임 장로에게 군선교를 넘겨주고, 저는 군선교연합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찬석 장로는 늘 다른 이들이 힘들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겼다. 교도소사역과 군선교 외에도 다양한 사역



군대에서 진행된 세례식, 강찬석 장로,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공연 모습(시계 방향으로).

에 헌신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이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선교'를 향한 소망과 발걸음

"갈렙청년부 멘토로도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해마다 청년들과 아웃리치를 함께 했습니다. 사역지에서 많은 현지인을 만나면서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화선교가 떠올랐습니다."

강찬석 장로가 문화선교를 떠올린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강찬석 장로는 젊었을 때 이미 문화선교를 향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30대에 친구들과 극단을 만들어서 연극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왕자'라는 극이었습니다. 그 공연에서 많은 관객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성극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소망을 청년부 아웃리치에서 되찾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사역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뜻이 맞는 동료 장로들과 성도들이 힘을 보탰다.

"문화사역에 소망이 있는 동료 장로들, 성도님들과 약 6년 전에 'CA문화선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직접 제작한 찬양 CD 판매 수익을 CGN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김효선 작가를 만났고,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제작에 참여하면서 문화사역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문화사역의 장점, '사람을 모으는 힘'

문화사역을 하면서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어려움이 많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과 동역자를 구하는 일이었다. 특히 뮤지컬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 공연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고민이 많았다.

"뮤지컬 <바울과 나>를 제작하는 데 3년 걸렸습니다. CA문화선교재단 동역자들과 매주 모여 기도하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렵게 완성된 뮤지컬 <바울과 나>공연에 관객 1만 2천 여 명이 다녀갔다. 공연에 참여한 배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뮤지컬 <바울과 나>에 출연한 배우 한 명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많은 관객이 공연을 보고 예수님이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A문화선교재단을 설립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문화사역을 하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찬석 장로는 문화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라고 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문화사역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 문화사역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전하는 일에 문화사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쓰일 것입니다."

'더 풍성한 문화사역'의 꿈과 비전

강찬석 장로는 앞으로 CCM 가수 양성과 지원, 사역지에서 공연을 통한 문화선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더 풍성한 문화사역이 그의 꿈이자 비전이다.

"CCM 가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반 콘서트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지만, 문화사역은 무료 행사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를 기획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CCM 가수들을 돕고, 양성할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또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CCM 가수들의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강찬석 장로가 헌신한 문화사역은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문화사역을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강찬석 장로와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결실을 주실지 기대된다. 문의: 010-7177-6091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오십시오”

우승구 장로가 경험한 변화 그리고 성장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회의감이 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온누리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온 우승구 장로(마포공동체) 역시 그 순간을 보냈다. 우승구 장로가 봄별이 꽃망울을 깨우듯, 신앙의 생동감을 되찾은 비결이 바로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이다. 우승구 장로에게 신앙의 생동감을 되찾아준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이 몹시 궁금했다. 어떤 요인이 우 장로의 신앙에 봄날을 선물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승구 장로는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서 경험한 변화와 성숙을 이 한마디로 정리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지금까지 우승구 장로의 그 좋은 신앙을 흔드는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IMF 외환위기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왔었다. 그때마다 우승구 장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 그가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참가한 이유도 그동안의 경험과 결이 같다.

“IMF 경제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한 경험이 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서 해고 위기를 겪고, 가정마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교회와 기도원을 전전하며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각종 기도



우승구 장로(왼쪽 하단)와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참여한 성도들.

회를 찾아다니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자 했습니다. 우연히 ‘금식성경읽기모임’에 참여하면서 체험한 ‘십자가’와 ‘광야 생활’이 제 삶과 신앙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와 공동체, 사역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번아웃(Burn Out, 소진)과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시무장로에서 은퇴하고 사역장로가 되면서 인생의 3막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때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참가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는 다짐이 다시 떠올랐고,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여를 고민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의 조합

우승구 장로는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의 가장 큰 장점을 키워드로 설명했다.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이 그것인데, 이들의 조합이 기가 막힌다고 설명했다.

“성경은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읽을 때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이 아주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과 다락방, 구역이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읽기’와 ‘기도’가 신앙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간의 모임이 서로의 세계를 넘나들며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성경읽기와 기도가 본질적인 회복을 가져다줍니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은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이 상호작용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보다 멋진 조합이 없을 정도입니다.”

“진정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 장로는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참가하면서 경험한 변화 과정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요즘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이념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몹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불신과 갈등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부끄럽게도 저 역시 무력화된 교회,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의 행태 등을 보면서 신앙과 삶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참가하면서 다시 성경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사람이나 제도, 환경이 아니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승구 장로는 신앙과 삶의 본질, 방향성을 회복하게 해준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서 성경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오십시오. 제가 경험한 그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칼럼



백지혜 권사
(OCC공동체)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서 함께 듣고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혼자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잦다. 하지만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서는 공동체와 함께 규칙적으로 읽고 나누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힘이 생긴다. 이것이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을 권유하는 가장 큰 이유다.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를 듣는 것보다는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성경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회중은 듣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당시 성경 말씀은 항상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성경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구술되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기도를 드린다. 그다음 구약과 신약을 각각 몇 장씩 읽고, 다시 <시편>으로 마무리 기도를 한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 담당 변대섭 목사님이 그날 성경 본문에 대한 개요와 배경 설명을 해주셔서 어려운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요즘에는 동영상 강좌를 듣거나 실제 강좌에 참여하여 배우는 방법 등 말씀을 접할 방법이 다양하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 선각자(先覺者)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책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서적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은 성경을 읽기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의 신앙 서적 읽기 시간은 숙제로 책을 읽어오고 그 내용을 토의하는 게 아니다. 모임에 참석해 그 자리에서 함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으로 읽는다. 그런데 공동체성경읽기모임 참가를 권유하면 누군가에

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망설이는 분이 많다. 부디 그 부담을 내려놓으면 좋겠다.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에 은혜가 되는 문장을 찾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는데 그 집중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어려운 책도 읽히는 감동을 맛보게 된다. 필자도 혼자서는 결코 읽지 못했을 신앙 서적을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참여하며 한 해 동안 5권 읽을 수 있었다.

또 오디오북을 통해서 귀로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단순히 글로만 읽는 것과 다르게 내용을 이해하는 효과가 배가 된다.

유대인들이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 있다.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이 시니어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그들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 일이다. 더불어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참여하면 느낄 수 있는 물 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은혜가 있다. 가볍지만 맛있는 차와 정성이 담긴 먹거리를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때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은혜받을 준비가 된다. 그렇게 모임에서 듣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서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어려운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의 지식도 풍성해진다.

필자는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은 나의 내면을 치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찾아가는 값진 여정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만나절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싶다.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공동체성경읽기모임이 곳곳에 많아지고 전파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혼자 성경 읽기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성도님들께 권하고 싶다.

맛있는 말씀 해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마 6:6)

기도는 신앙의 본질적인 행위이자 성도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며, 믿음이 더욱 깊어짐을 누리게 된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총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는 그 형태와 목적, 내용과 표현 방식 등에 따라 통성기도, 침묵기도, 중보기도, 묵상기도, 방언기도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 중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개인기도’의 본질과 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한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과 경건을 가르친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 태도를 지적하면서 진실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그들은 일부러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결과 그들의 기도는 장황하고 반복적이며 형식적인 주문처럼 변질했고, 금식할 때조차 초췌한 모습을 보이며 의를 드러내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위선적 태도를 꾸짖으시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이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들의 기도가 외적 형식과 행위에 치중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중심과 내면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된 ‘방’ (개역개정에서는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ταμειον)’인데, 창고나 내실, 침실 등 외부와 단절된 은밀한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곡식이나 귀족품을 보관하는 방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장소다. 그러므로, 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공간에서 하는 기도를 의미하기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해서 가장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기도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도의 태도와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지, 공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과 핵심이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내면의 태도임을 보여준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려한 언어나 기도의 길이를 보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쁘고 분주한 삶에 치여서 어쩌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보다도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과 같다. 분주한 삶의 소음을 낮추고, 영혼의 산만함을 잠재우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누리게 될 것이다.



박천중 목사
(동작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사명으로 이끄시는 사랑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김노을 성도와 가족들을 위해

신용산공동체 김노을 성도가 3월 26일(수) 아버지 김관영님께 신장을 기증하는 수술을 합니다.

지난해 이식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여러 질환이 겹치면서 가족들이 이식 수술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노을 성도는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건강을 관리하며 수술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려 속에도 아버님의 건강도 꾸준히 회복돼 마침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몸소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김노을 성도에게 담대한 믿음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주시고, 김노을 성도가 신장 기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수술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해주시고, 이번 수술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주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과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수술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시고.

/ <생명의 삶> 편집부

/ 신용산공동체

3월 10일~3월 16일

<요한복음> 9:31~21:25,
<민수기> 1:1~19



를 묵상하자.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성경 말씀의 성취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고, 니고데모는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져온다. 그들은 예수님을 장례하고 시체를 동산 안 새 무덤에 둔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린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날 저녁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평강을 전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다.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는 못 박힌 흔적을 보이시며 보지 않고도 믿는

묵상포인트 1: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한다. 죽음에는 부활이, 십자가에는 영광이 따름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 빈 무덤의 의미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말씀을 묵상하자.

사람이 복되다고 하신다.

묵상포인트 2: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다. 부활의 예수님이 밤새 고기잡이로 허기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신다. 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의 방향과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자.

▶베드로를 포함해 일곱 명의 제자가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어 갈 때,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말씀대로 행하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자, 준비해 두신 식사를 그들과 나누신다. 식사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에 걸쳐 물으신다.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에 예수님이 “네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명하신다. 또한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신다.

묵상포인트 3: <민수기>에는 책명과 같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온다(1장, 26장). 인구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 행군을 위한 준비를 갖춘다. 광야 행군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애굽(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순장영성수련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공동체 리더십 2,100여 명 참석,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

2025 순장영성수련회가 막을 내렸다. 올해 순장영성수련회는 지난 3월 3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와 AMA 협력교회 춘천 새순교회 공동체 리더십(공동체 담당장로, 총무, 다락방장, 순장) 2,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마음의 모양은 변화될 수 있다’(마 13:1-9)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땅의 종류와 상관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순을 목양하는 리더십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준 장로는 ‘젊은 가정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을 주제 발표를 했다. 같은 주제로 패널 토의도 이어졌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나눴다.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식에서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536명



사진은 '2025 순장영성수련회'.

이 임명장을 받았다. 김장열 다락방장, 김윤숙 순장, 차예승 순장이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온누리 순장 어워드에서는 최장기 순장상 한동욱, 고동영, 김현준, 김태오 순장, 최다산 순장상 고은혜 순장, 기러기 순장상 김태오, 최원영, 원동준 순장, 감동 순장상 문광호, 신금철, 정성현 순장, 최고령 순장상 황종수 순장, 최연소 순장 최

예승, 민요셉 순장이 수상했다.

이연실 순장(찬양공동체)은 “과거 경험을 강조하기보다 순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함께 걸어가는 순장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원열 순장(경기A공동체)은 “더 많이 듣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바울로부터 패키지’ 선물 캠페인

CGN 홈페이지에서 신청

CGN이 선교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영상과 책, 굿즈를 담은 ‘바울로부터 패키지’를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는 선물 캠페인을 한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CGN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바울로부터 패키지’ 한 세트(set) 가격(10만 원)이 기준이다.

‘바울로부터 패키지’에는 책 <바울로부터> 1권,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지명사전> 1권, 선교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영상(한국어 1~10편, 영어 자막 1~10편, 심화강의 1~6편)과 워크북이 담긴 USB, 책갈피 13매가 들어있다.

한편, CGN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ICV M 크라운 어워드’에서 해외 영화(Best Foreign Production) 부문 금상(Gold Crown Award)을 수상했다. 문의: 02-3275-9321

“어르신들께 온기를 나눴어요!”

파워웨이브 청소년 33명, 60가정에 식료품 전달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 33명이 지난달 26일(수)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청파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어르신 60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후원 물품을 포장하고, 어르신들께 손편지를 작성해서 전달했다.

이상욱 목사(파워웨이브)는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만나고자 나온 청소년들이 기특하고 감사했다”면서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 만큼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워웨이브 청소년이 어르신들께 식료품을 전달했다.

김갑록 관장(청파노인복지관)은 “1년 내내 파워웨이브 청소년들이 오는 날만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정도”라면서 “이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 이어져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온두라스 나무심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 3월부터 3개월 동안 지구사랑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3월부터 3개월 동안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온두라스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한다.

온두라스 코마야과마을에는 한라산 높이의 험준한 산에 있다. 그런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산사태가 자주 발생해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두라스 코마야과마을을 주민들을 지켜줄 나무가 필요하다. 커피 한 잔 가격이면 묘목을 심을 수 있다. 온두라스 나무 심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나 하단 QR 코드로 참여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6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PS)’ 개교 및 학생 모집

4월 2일부터 1차 원서 접수, 5~8학년 대상

성경적 세계관 국제대한학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eoul Providence School)이 오는 8월 개교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PS)은 온누리 청소년센터에 있다. 다음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우수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에서 함께 공부할 학생은 5학년에서 8학년까지가 그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seoulprovidence.org)에서 하면 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의 환경과 시설, 커리큘럼 등을 소개하는 오픈하우스를 4월 19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한다. 문의: office@seoulprovidence.org

59기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4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

59기 젊은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와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결혼 12년 차 이하 40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13년 차 이상 별도 문의). 회비는 가정당 28

만 원(3월 31일까지 등록하면 25만원). 참가신청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젊은부부학교’를 검색하거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남편(010-9015-3090)

아내(010-9969-3621)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양재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 모집

양재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장 전도 실습(5~9주차)도 병행한다.

온누리전도학교는 온누리교회가 직접 제작한 전도지 <최고의 행복>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전도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3010-0156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개강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이 개강한다.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0분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15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비 별도).

문의: 010-7228-5798

헬로맘스쿨 서빙고 금요오전반 모집

헬로맘스쿨 서빙고 금요오전반을 모집한다.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1주 차, 6주 차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2~5주 차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3월 21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7233-7280, 010-5602-4186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3월 19일부터 서빙고 두란노홀, 양재 드림홀

서빙고와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한다. 3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빙고 두란노홀(오전 11시), 양재 드림홀(오전 10시 30분)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당일 접수 또는 아이스쿨(schoolionnuri.org), 목회행정

실에서 하면 된다. 양재는 당일 접수만 받는다. 65세 이상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5만원.

문의: 서빙고(02-3215-3220), 양재(010-7347-3473)

/ 홍하영 기자

2025년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 추첨

3월 18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5년 하반기(8~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추첨을 3월 18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를 예약하려면 예비 신랑과 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여야 한다.

결혼예배 예약 추첨을 하러 올 때는 예약금 200만 원(당일 이체불가,

현금으로 준비)과 등록교인증명서,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은 제비뽑기로 순번을 추첨하고, 그 순서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점한다. 온누리교회 목사만 주례를 볼 수 있고,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진행(토요일 12시, 2시)된다. 피로연(식사) 예약은 최소 200명~최대 500명이다.

문의: 02-570-7505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illegible]



2025 두플러스 + 작은교회 후원 캠페인

교회의 자립과 목회자의 성장을 위해 두플러스를 후원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부터 **500명** 소진 시까지 (선착순)

후원 내용

**두플러스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240,000원

- 생명의삶 PLUS · 목회와신학 등 최신 월간지 및 과월호
- 설교 · 성경사전 · 주석 등 목회 전문 자료
- 언어별 · 세대별 QT지
- 2,000원 이상의 전자책 · 오디오북
- 전문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무제한 이용!

신청 자격

- 목회자** · · 출석 교인 수 50명 이하의 미자립교회
선교사 · · 교회 및 단체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
부교역자 · · 전임 교역자를 제외한 교육 목사·파트 전도사 등

- ✓ 본인만 신청 가능(단체 신청 불가)
- ✓ 2023년 후원 대상자는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두플러스 내 신청 페이지(www.du.plus/sponso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제출

신청 절차



신청 문의

☎ 02.2078.3234 TALK 카카오톡(@두플러스) ✉ duplus@duranno.com



큐티

생명의삶 ·
Living Life ·
새나 · 예나 · 예조

세대별/언어별 QT를
역본 대조, 오디오 QT로
쉽게 목상할 수 있어요.

매거진

생명의삶 PLUS ·
목회와신학 ·
그말씀 · 빛과소금

최근 월간지부터 과월호까
지, 웹 매거진 형태로 열람
할 수 있어요.

도서

약 2000권 이상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두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
는 두플러스 ONLY 도서
도 놓치지 마세요.

클래스

가ospel 프로젝트 ·
기독교 영성 고전산책 ·
성경공부

전문 강사들의 세미나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바로 만나 보세요.

두플러스는 두란노서원에서 운영하는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du+ duplus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Q** 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